

2) 서정권(徐廷權)

1912년 12월 31일 장천동의 부호인 서병규의 4남 3녀 가운데 셋째로 태어난 그는, 중동중학 1학년 때 일본으로 건너가 권투선수였던 황을수 선수를 만나면서 권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황을수와 같은 도장에 다니면서 권투를 배운 그가 아마추어선수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운동을 시작한 그 이듬해 10월 전일본신공경기대회 플라이급에서 우승하면서부터이다. 그후 전일본아마추어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관동학생선수권대회 등 각종 경기에서 우승을 5차례나 하면서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1932년 4월에는 일본인 매니저 와타나베 유지로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원정경기를 가졌다. 모두 4차례의 대전을 케이오승으로 마감하여 미국인들을 대단히 놀라게 하였다.

이렇게 유명해진 그는 미국에 도착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국제권투협회(NBA) 밴텀급 2위인 리틀 판초와 대결을 가져, 시종 우세한 내용의 경기를 벌였으나 10회 무승부의 결과가 선언되자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와 격려를 받기도 하였다. 1934년 9월 뉴욕 챔피언 뉴 파머와의 대전에서 판정승을 거둔 직후 국제권투협회 랭킹 3위가 되어, 랭킹 1위인 스피디 다도에게 도전하였다. 그와의 전적은 1승 3패를 기록했는데, 1승은 2회 케이오승을 기록하였으나 3패는 모두 판정패였다.

1935년 잠시 귀국한 그는 부친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권투를 포기하고, 그 이듬해 결혼하여 슬하에 4남 1녀를 두었다. 권투선수 생활을 마치고 순천 연도관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988년 타계하였다.